

KWDI

해외통신

2020년 9월 2차 (2020.09.16~09.3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캐나다 CANADA



캐나다 여성계, 코로나19의 성별화된 피해 회복을 위해 긴급지원금 대신 기본소득제로의 전환 요구

김 양 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캐나다는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이후, 캐나다 긴급지원(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 정책을 실행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실업상태에 처하게 된 850만 명의 캐나다인들에게 매달 2000 캐나다 달러(약 176만원)를 지급해 오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통제가 되는 듯 보였던 캐나다의 코로나19 상황은 2020년 9월 개학을 기점으로 또다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이 긴급 재정지원 프로그램은 10월을 마지막으로 종료를 앞두고 있어 긴급 재정지원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캐나다에서 4천여 명의 개인들과 단체들로 구성된 온타리오 기본소득 네트워크(Ontario Basic Income Network)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의 젠더적 측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긴급 재정지원에서 기본소득(guaranteed basic income)으로 정책을 전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캐나다 여성재단과 여러 여성단체들이 참여한 이 네트워크는 코로나 경제위기는 캐나다 사회의 구조적인 젠더 불평등이 심화된 형태로 드러난 것이고 이 때문에 실업 등 경제적 충격이 여성들에게 유독 가혹했다고 지적하면서, 실업급여 등의 기존 부조 정책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다루기에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참고자료

- The Star(2020.09.15.),
“Coalition calls on federal Liberals to bring in a basic income to address gender inequity”,
<https://www.thestar.com/news/canada/2020/09/15/coalition-calls-on-federal-liberals-to-bring-in-a-basic-income-to-address-gender-inequity.html>
(접속일: 2020.09.20.)
- Global News(2020.09.19.),
“Basic income rally held at Alberta legislature grounds amid looming CERB deadline”,
<https://globalnews.ca/news/7346641/coronavirus-alberta-legislature-rally-cerb-deadline/>
(접속일: 2020.09.20.)
- Global News(2020.09.12.),
“Guaranteed basic income emerges as top policy priority for Liberal MPs amid COVID-19”,
<https://globalnews.ca/news/7330929/liberal-caucus-guaranteed-income/>
(접속일: 2020.09.20.)
- Canadian Women's Foundation(2020.8.31)
Is Gender-Relevant Universal Basic Income Possible?
<https://canadianwomen.org/blog/basic-income-covid/>
(접속일: 2020.09.20.)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직 없으나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이란 개인의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이들이 기본적인 삶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간에 정부로부터의 조건 없는, 자동적인 현금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9월 초 연방 정부 노동부 장관이 연방 정부가 기본소득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고, 이어 현 여당인 자유당 의원들이 기본소득 제도가 11월 전당대회에서 최우선으로 논의 될 것이라고 밝혀 현재 긴급 재정지원 이후의 정책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나뉘고 있다. 예컨대 9월 19일 글로벌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콩코디아 대학 (Concordia University) 경제학과 모세 렌더(Moshe Lander) 교수는 기본소득제도는 그 의도는 좋으나 효과적으로 올바르게 집행하기가 어려운 제도이며 현재 캐나다 정부 부채가 연 3천5백억 달러 시행 가능할지가 의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소규모의 노동인구로 하여금 대량의 실업자들을 지탱하도록 하는 제도는 장기적으로 작동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페미니스트들은 기본소득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예컨대 9월 15일 토론토스타지의 보도로는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캐나다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을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가정폭력은 늘어나 지역에 따라 30% 늘어나기도 했는데,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웨스턴 대학원(King's University College at Western University) 트레이시 스미스-케리어(Tracy Smith-Carrier) 교수는 많은 여성이 폭력을 행사하는 배우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주된 이유기 바로 그들에게 그럴만한 경제적인 여건이 없어서라고 설명했다. 실업 여부만으로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판단하고 지원한다면 이러한 여성들이 처한 젠더화된 위기는 사각지대에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캐나다 여성재단 또한 빈곤의 젠더적 측면을 고려할 때 기본소득이 공식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여부에 의존하는 긴급재정지원보다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기본소득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임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먼저 여성들이 집안에서 수행하는 무급 노동을 정부가 기본소득으로서 보조할 수 있다면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참여가 높아지고 전반적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여성재단에 의하면 이러한 선순환 효과는 퀘벡주의 사례로 입증이 되었는데, 2008년 퀘벡주가 저비용의 아이 돌봄 시스템을 갖춘 후 주의 GDP가 유의미하게 드러났다. 또한 주 정부가 여성의 돌봄 노동을 분담함에 따라 한부모 가정의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눈에 띄게 늘어났고, 복지 제도에 의존하는 여성들의 수가 50% 이상 감소했다는 것이다. 캐나다 여성재단은 기본소득이 운용하기에 너무 비싸다 혹은 이 제도가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2017년과 2018년 핀란드에서 시행된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그램에서도 기본소득을 받은 개인들이 실업수당을 받은 개인들보다 더 일을 했다는 점, 최근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도 캐나다에서도 기본소득이 긴급재정지원을 운용하는 것 보다 비용이 절감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으로 반론했다. 여성재단은 또한 현재 캐나다에 20만 명의 빈곤 여성들이 존재하는데, 재단의 빈곤여성 연구에 의하면 빈곤인구의 절반가량이 자신들이 교육을 받을 시간과 비용을 충당할 수 없어 원하는 정도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기본소득제도로 이들 여성들 모두를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한다면 이들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노동시장에 참여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젠더화된 빈곤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독일, 코로나19 돌봄 공백에 따른 가족·친척 돌봄자 긴급지원 연장

채혜원 독일통신원

-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돌봄 시설 폐쇄 등으로 돌봄 공백이 늘어나자 독일 정부는 가족 내 돌봄에 대한 지원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부터 시작해 9월 말까지만 시행하기로 한 가족·친척 돌봄자를 위한 긴급지원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이어간다.
- 구체적인 지원 내역을 보면, 우선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긴급하게 가족이나 친지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쓸 수 있는 ‘단기간 무급 돌봄 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렸다. 이에 따라 돌봄 시설 폐쇄 등으로 인해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돌봄 휴가를 20일까지 쓸 수 있다.
- 단기간 돌봄 휴가는 무급 휴가이기 때문에 휴가 기간에는 임금을 대체할 수 있는 돌봄지원금(Pflegeunterstützungsgeld)이 지급된다. 구체적인 금액은 근로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단기간 무급 돌봄 휴가를 쓰는 보험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 세전 급여의 약 90%를 돌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가족이나 친지를 집에서 돌보거나 간병해야 하는 근로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5년에 도입됐다.
- 이 외에도 독일에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돌볼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휴가(Pflegezeit)’ 제도가 있다. 보살핌이 필요한 미성년자가 있거나 가까운 가족·친척을 집 밖에서 보살피는 경우에도 이 휴가를 쓸 수 있다. ‘돌봄 휴가’가 필요한 근로자는 직원이 15명 이상 일하고 있는 회사의 고용주에게 휴가를 요구할 수 있다.
- 돌봄휴가 이후에도 계속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24개월까지 쓸 수 있는 ‘가족 돌봄 휴가(Familienpflegezeit)’ 제도도 있다. 독일 정부는 이 제도와 관련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휴가 자격 조건을 완화했다. 이전에 가족 돌봄 휴가를 쓰려면 근로자의 최소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이었지만 정부의 긴급 지원에 따라 주 15시간 이하 근무자도 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가족 돌봄 휴가 역시 보살핌이 필요한 미성년자나 가까운 가족·친척을 집 밖에서 보살피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족 돌봄 휴가는 직원이 25명 이상인 회사의 고용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제도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근로자가 생계를 위한 일을 함과 동시에 가족과 친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프란치스카 기파이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돌봄 시설 폐쇄 등으로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담이 커졌다”며 “이들은 구체적인 정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에 정부는 가정 내에서 가족과 친척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를 위한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올해 마지막 날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05.19), “Die Familienpflegezeit”, <https://www.bmfsfj.de/bmfsfj/themen/aeltere-menschen/vereinbarkeit-von-pflege-und-beruf/familienpflegezeit/die-familienpflegezeit/75714> (접속일: 2020.09.14.)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09.02), “Akuthilfen für pflegende Angehörige in der COVID-19-Pandemie werden verlängert”,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akuthilfen-fuer-pflegende-angehoerige-in-der-covid-19-pandemie-werden-verlaengert/160238> (최종 검색: 2020.09.14.)
- pflege.de(2020.08.27.), “Pflegeunterstützungsgeld: Lohnersatzleistung berechnen und beantragen”, <https://www.pflege.de/pflegekasse-pflegefinanzierung/pflegeleistungen/pflegeunterstuetzungsgeld/> (최종 검색: 2020.09.15.)

✎ 현재 독일에서는 약 340만 명의 사람이 돌봄을 필요로 하며, 그중 3/4이 집에서 돌보고 있다.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자료에 따르면, 약 480만 명의 가족 및 친지가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돌봄과 간호를 제공하는 480만 명 중 약 250만 명은 근로자로 일하면서 동시에 집에서 가족이나 친지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이들의 70% 이상이 여성이며, 이 여성들은 아이 육아와 돌봄에 대한 책임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